

2025 * No.50
January+February

향긋한 인터넷 카페 동서식품 홈페이지
www.dongsuh.co.kr

독자정보 변경과 구독 중지는 웹진과 독자 엽서,
전화를 통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독자 엽서를 참고해 주세요.

사람과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눈이 오면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기를



© 최성환_하얀 마음

동서식품

*
COVER
STORY

가끔은 온 세상이 하얀색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린시절에는 눈이 오면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눈 쌓인 마당을 뛰어다니며 온 몸을 하얀 눈으로
물들이고 나면, 이내 귀와 손이 빨갛게 얼어붙었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모자와 장갑을 챙겨 나오던
어머니의 고운 얼굴이
오늘따라 무척이나 그립습니다.



하얀마음_최성환[2016작 | 53cm x 45.5cm | 마천에 혼합 채색]

Vol.50
2025.01+02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CONTENTS

- | | |
|---|---|
| 04 차 한 잔의 향기
삶의 조각을 기록하는 스몰 컬렉터 영민 | 36 우리집 식물원
평화와 풍요의 상징 올리브나무 |
| 08 문학의 향기
이력서를 인화하다 | 38 일상의 향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응원 |
| 12 길 위의 시간
신비한 동화 속 하얀 세상, 알레치 아레나 | 42 스마트한 생활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새해 인사 카드 |
| 18 올댓 커피
떠오르는 커피 거인, 인도의 커피문화 | 44 행복 레시피
우영 떡만둣국 & 말차라떼 크림치즈 찹쌀떡 |
| 22 한국의 재발견
백성에게 시간을 나누어 주었던 ‘오목해시계’ | 46 동서 뉴스
동서식품의 다양한 소식 |
| 26 클래식 산책
드보르자크와 ‘신세계 교향곡’ | 48 삶의 향기 뉴스
독자 추천 도서와 엽서 분석 |
| 30 도시를 걷다
고립무원의 철옹성, 남한산성 | 50 게시판
독자 의견 및 퀴즈 |
| 34 맛있는 이야기
겨울철 쫄쫄한 영양 덩어리 ‘과메기’ | 51 브랜드 스토리
동서식품 제품 이야기 |

통권 제 50호 발행일 2025년 1월 1일 발행(격월간·비매월) 등록일 2016년 10월 7일 등록번호 마 00005 발행인 김광수
발행처 동서식품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별로55 홈페이지 www.dongsuh.co.kr 편집·디자인 케이아트만(주) T.(02)511-7053
인쇄 신영 T.(02)2275-1600 구독문의 편집실 T.(02)511-7053



소소한 일상을 수집하다 삶의 조각을 기록하는 스몰 컬렉터 영민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이 나에게서는 더없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
어떤 물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기때, 수집하는 즐거움은
상상 그 이상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글. 김효정 사진. 김재이

순간을 붙잡는 기록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 그런데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없다. 하루, 이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그렇게 매일 소모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평범한 일상을 조금 특별하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인 영민 씨는 작지만, 소소한 수집품으로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 조금 넘게 유럽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미술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어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사정상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단기로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몇 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행 겸 자유롭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나만의 작고 소소한 수집품을 보관하고, 정리하고 기록했죠. 수집이라는 것이 때로는 거창한 의미로 쓰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집은 뭐든지 될 수 있거든요. 누구든 일상의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만난 새로운 세상은 즐거움이 가득했다. 눈 앞의 풍경, 사람들의 웃음소리, 새들의 날개짓마저 특별하게 느껴졌다. 음식점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후식으로 준 사탕의 껍질도 추억의 한 조각 같았다.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을까?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아름다움의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작가는 아름다운 것을 만나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아름다움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방법의 하나로 드로잉을 제안해요. 글이나 그림과 같은 창작으로 어떤 사물을 관찰하면서 아름다움의 요인을 관찰하라고 말이지요.”



인생을 살면서 지금껏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이라도 드로잉을 하면 사물과 공간을 더 자세히,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자세히 보고 느끼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몇 년 전 코스타노바 해변에 갔었다. 그런데 배터리가 없어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버렸다.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했다. 언제나 휴대폰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하며 즐거워했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남았다. 모래사장에 주저앉아서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펜과 노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스케치하고, 조개껍질과 새의 깃털을 주우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바다의 풍경이 놀랄 만큼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았다. 그동안은 사진을 찍느라 일상의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셔터를 누른다. 그러나 가끔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눈에 담고, 그것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리면 사물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

수집의 기쁨을 담은 스몰컬렉팅북

“여행지에서 수첩이나 노트에 수집하고 기록한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 보는 작업을 했어요. 사소한 것들로 만든 나만의 취향과 감성, 그리고 추억을 담은 책이라서 제목에도 작은 수집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수집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요.”

일상이 단조롭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작은 수집을 시작해 보길 바란다. 작은 수집은 집의 한 공간을 어떤 물건으로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일도 아니기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삶과도 공존할 수 있다. 생활의 작은

조각을 수집하고 세상을 관찰하며 기록을 남긴다. 여기서 내가 몰랐던 취향을 찾을 수도 있다. “무언가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노트를 한 권 정해서 그곳에 수집한 물건에 대해 생각하는 대로 쓰거나 그리거나 붙여 보세요. 너무 잘 만들려고 애쓰면 스트레스만 커지거든요. 꼭 다 채워 넣지 않아도 좋고요. 커피 한 잔을 사 먹은 영수증이나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 책이나 드라마에서 본 좋은 말… 무엇이든 좋아요. 오늘 하루 인상 깊었던 일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리고, 일기를 쓰듯 이야기도 보태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무용하고 의미가 없다고 해도, 나에게만 의미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일상을 수집하고 기록하다 보면, 나만의 스몰컬렉팅북이 완성된다. 똑같은 일상이라고 수집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많은 것들이 수집품이 될 수 있다. 습관적으로 가는 길 대신 다른 루트로 걸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매일 똑같아 보이는 사물도 더 자세히 관찰하고 나무의 모양, 가게 간판의 색깔, 건물 외관 타일의 형태 등을 다른 시선으로 본다.

“날씨나 빛, 그림자와 같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은 사진을 찍어 수집할 수 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흥미가 생기면 쓸모에 대해 따지지 않고 모아둬요. 예쁜 쓰레기 모으는 사람이면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게 의미 있는 물건이라면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걸요.”

누구라도 수집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무용하지만, 나에게겐 가치 있는 것. 내 손에서 다시 태어나 추억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소박한 수집품. 많은 사람들이 반복된 일상에 지치고, 의미 없는 날들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작은 수집을 시작한다면, 매일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당신은 이미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니 말이다.



<문학의향기>는 매호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수상자들이 새롭게 선보이는 소설, 에세이 등으로 채워집니다.
살아 있는 감수성과 힘 있는 필력을 가진 작가들이 펼치는 문학의 정수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수 필

The 68th Story

이력서를 인화하다

글. 김응숙 일러스트. 조주홍



저만치 터널 입구가 보인다. 하루 종일 내리던 빗줄기는 저녁 무렵이 되자 조금씩 잦아든다. 그래도 먹장구름이 가득한 하늘에서 간간이 굵은 빗방울이 차 앞유리창으로 떨어진다. 와이퍼가 지나가자, 빗방울이 퍼지며 앞차 후미등 불빛이 굴절된다. 도로는 검은 기름을 바른 듯 번들거린다. 차선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시상식 때 들었던 마음이 가라앉는다. 아직 집까지 갈 길이 멀다.

*

차가 터널로 들어선다. 하늘이 닫히며 새로운 시공간으로 옮겨온 느낌이다. 일순 빛과 소리가 달라진다. 잠시 귀가 멍하더니 벽에 부딪혀 공명하는 타이어 소음이 귀를 뚫는다. 드롭스처럼 연이어 벽에 붙은 등이 있기는 하지만 터널 속은 어둡다. 꽤 긴 터널이다. 빛이 없는 입구 쪽을 바라본다.

암실은 깜깜했다. 문에 친 두꺼운 커튼을 들추고 방에 들어서자, 어디선가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듯했다. 우리는 선생님 작업대에 붙어 섰다. 희미한 붉은빛이 침전물처럼 고여 있는 방이었다. 선생님은 집게로 인화지를 집어 여러 번 용액에 넣고 흔들었다. 서서히 우리가 입은 흰 블라우스와 검은 주름치마가 나타났다. 슬레이트 지붕을 한 나지막한 교사를 배경으로서 있는 비인가 중등 과정 야간학교 학생들이었다.

나는 어둠에 익숙했다. 겨우 입학한 중학교를 일 년도 다니지 못할 만큼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다. 학교를 그만두고 두문불출하는 나를 어머니가 산등성이 야간학교로 이끌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스며들면 못에 걸어둔 교복을 챙겨입고 박쥐처럼 집을 나서곤 했다. 낮에는 집안 살림을 돕거나 공장에 갔다. 어린 나이에 주경야독하는 셈이었는데 알아주는 이가 별로 없었다. 밤늦게 하교하다 보면 불량 청소년 취급을 받기도 했다. 그래도 흐르는 달빛에 굳은 관절을 녹이며 비상을 꿈꾸는 박쥐처럼 어둠 속에서 팍팍한 산등성이를 삼 년 동안 오르내렸다.



**

야간은 한 반뿐이었으므로 선생님은 내리 삼 년 동안 담임이었다. 물리와 생물을 가르치셨는데 수업은 늘 재미있었다. 선생님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책을 빌려주거나 클래식 음악을 녹음해 주는 시간에 틀어주었다. 사진기로 아이들 사진을 찍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만 해도 사진기가 귀하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암실에서 우리의 모습이 인화되는 신기한 경험을 한 것도 선생님 덕분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날 사진에 남은 친구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인화되어 갔다. 하지만 나는 암실의 문을 굳게 닫아걸었다. 선생님은 졸업 후 고등학교 진학이 막막한 나를 위해 첫 입학금을 마련해주셨다. 상위권을 놓치지 않은 제자의 가능성을 응원하신 거였다. 그러나 그 또한 채 일 년을 넘기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두 번의 중퇴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절의 나를 세상에서 도려내어 암실에 가두기에 충분했다. 나는 고통 속에서만 선생님을 떠올릴 수 있었고, 그마저도 아득한 어둠 속에 밀어 넣고 긴 세월을 살았다.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한 나는 세상의 언저리를 빙빙 돌았다. 급급한 현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간혹 용기를 내어 가운데로 나아갈라치면 세상은 나에게 이력서를 요구했다. 중단과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 문장은 이력서에 적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텅 빈 이력서를 들고 돌아서곤 했다.

카톡으로 선생님의 연락을 받은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동창회와 사운회를 개최하고 있었지만, 나는 참여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옛 제자가 많이 아프거나, 몹시 형편이 안 좋거나, 이미 세상에 없는 건 아닌지 걱정하셨다고 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한사코 밀쳐 놓았던 시간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찾아뵈 날짜를



정해놓고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다. 양산에서 하남까지 올라가는 열차 속에서 온갖 생각으로 가슴이 두방망이질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니게 일그러져 있었다.

칠순 중반의 선생님은 안방으로 들어가 카메라를 꺼내왔다. 거실 소파에 나를 앉히고 삼각대를 세우고 타이머를 맞췄다. 양쪽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앉고 초로의 내가 가운데에 앉았다. “찰칵” 셔터가 내려졌다. 그 순간에 지난 시간이 응축되어 필름에 각인되었다. 두 분의 손이 내 손 위에 얹혀 있었다.

그때의 시간을 마주 보는 건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 마치 십 대로 돌아간 듯 선생님은

따뜻했고 나는 편안했다. 그밖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무성한 옛이야기 속에서 나는 그 시절 나를 보았다. 말이 없고, 눈물이 많은 아이였다. 암실 문이 슬며시 열렸다. 며칠 후 보내주신 사진에서 나는 활짝 웃고 있었다. 어둡고 긴 터널이 끝나 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진정한 끝에 다다른 사람만이 진정한 시작을 할 수 있다. 진정한 끝이란 고통에도 불구하고 지난했던 여정을 마주 바라보는 때이다. 상실과 상처의 시간을 스스로 보듬어 안는 순간이다. 한동안 평온한 시간이 지나고 나는 서성거렸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스물스물 새싹 같은 뾰족한 무엇이 내 마음을 긁어댔다. 써 놓았던 소설 두 편을 동서문학상에 응모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빗방울은 성근 눈으로 변해있다. 와이퍼 아래 얇은 얼음 막이 서걱거린다. 가로등 편광이 앞유리창을 비춘다. 그곳에 ‘동서문학상 대상 수상’이라는 내 이력서 한 줄이 떠오르더니 서서히 인화된다. 나는 그 글자들을 조용히 바라본다. 저만치 도로변에 세워진 크리스마스트리가 반짝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 작가PROFILE: 권동숙
제17회 삶의힘기 동서문학상 대상 수상



신비한 동화 속 하얀 세상 알레치 아레나

구름 가득한 소나무 숲 위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이름도 생소한 알레치 아레나(Aletsch Arena)가 펼쳐진다. 겨울이 되면 아이를 썰매에 태워 오가는 마을 베티머알프(Bettmeralp)와 새파란 알프스 빙하로 가득한 풍경을 볼 수 있는 에기스 호른(Eggishorn). 목조 지붕 위로 쌓인 눈은 폭신한 카스텔라와 같은 모습으로 동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글/사진, 박재신[여행작가]





스위스 푸른 보석, 알레치 빙하

스위스 여행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융프라우요흐(Jungfrau)에는 방문해 봤을 것이다. 유럽의 지붕 3,454m, 유럽에서 가장 높은 해발 고도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선다. 저 멀리 눈 쌓인 설산 사이로 보이는 빙하가 바로 알레치 빙하다. 길이 23km, 평균 폭 1,800m에 달하는 알레치 빙하는 270억 톤의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마어마한 얼음덩어리가 녹아 엄마의 젖줄기처럼 스위스 곳곳으로 스미고 흘러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한다. 사실 여러 차례 스위스에 방문했지만, 관심 갖지 않았다. 그런데 처음으로 빙하 옆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소개할 알레치아레나다.

빙하가 흐르는 강줄기를 거슬러 비밀스러운 마을에 입장하려면 베펜(betten) 역에 도착해야 한다. 기차에서 내려 케이블카를 타고 베트머알프에 도착하기를 겨우 20분. 초록빛 생기가 가득했던 풍경은 어느새 고요한 하얀색으로 가득 찬다. '과연 올라가면 무엇이 보일까?' 희뿌연 구름 사이로 들

어서자, 기대감을 키우기도 전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발 아래 뽀족한 침엽수림과 멀리 보이는 웅장한 마테호른(Matterhorn), 잠시 가라앉았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곤돌라에 내려 먼저 마주한 풍경은 감성이 부족한 대문자 T에게도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다.

스위스의 숨은 동화마을, 베트머알프

따뜻한 햇볕마저 시리게 다가올 것만 같은 겨울 베트머알프는 풍광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 방식도 특별하다. 스위스에서 차 없는 마을로 유명한 체르마트처럼, 알레치 아레나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베트머알프 Bettmeralp, 리더알프 Riederalp, 피셔알프 Fischeralp) 모두 일반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청정지역이다. 현지인들은 모두 스키를 타고 다니거나, 짐과 아이들을 눈썰매에 태우고 오간다. 걸어 다니는 것보다 훨씬 편하기에 스노우 슈잉을 당연하게 여긴다. 만약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마을 곳곳에 있는 렌탈샵에서 쉽게 겨울용품과 스키, 눈썰매를 대여할 수 있다. 베트머알프에서 사진 명소로 가장 유명한 마이라 춤 쉬네(Maria zum Schnee) 예배당 앞은 아이들이 많이 찾는 놀이터가 된 지 오래다. 크고 작은 눈사람들을 만들어가며



1.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스노우 슈잉을 즐긴다.
2. 설산 사이로 보이는 정대하고 아름다운 알레치 빙하.
3. 베트머알프는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대형 케이블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
4. 동화속 마을을 연상하게 하는 알레치아레나.





관광객들이 전망대에서 대자연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알레치 빙하와 융프라우를 관망하고 있다.

재능을 뽐내는 경연장이다. 베트머알프의 연평균 적설량은 약 5m, 겨울철 일일 평균온도는 최저 영하 2도에서 영하 9도 사이로 하루에도 여러 번 눈이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는 지역이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5시경이 되면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어른들의 시간이 온다. 사진가들은 삼삼오오 삼각대를 펼치고 물드는 하늘 아래 경건하게 자리한 예배당을 향하여 셔터를 누른다. 잠시 숙소에 들어가 따뜻한 수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쉬다 보니 마을에도 밤이 찾아왔다. 낮에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던 무채색 가로등이 붉게 빛나면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유일한 길라잡이가 된다. 어둠이 한 겹 더 내려앉아 적막해진 마을에 눈 밝은 소리를 더해본다. 지붕에는 갓 구워낸 카스텔라를 잘라낸 단면처럼 포슬포슬하게 덮인 눈들이 보는 재미를 더해줬다.

다른 계절, 다시 찾은 알레치 아레나

따뜻해진 여름에 다시 이곳을 찾았다. 지난겨울 시간이 부족해 가지 못했던 알레치 빙하의 정수, 에기스 호른에 방문하기 위함이다. 여름이 찾아온 베트머알프는 겨울철 내가 보았던 풍경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이었다. 스위스의 초록빛 자연은 지역을 불문하고 언제나 풍요롭다. 한가득 피어난 노랑고 흰 야생화를 따라 시선을 잇다 보면 너른 들판과 소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는 모습이 보인다. 소들이 고개를 숙일 때마다 목에 달린 큼지막한 카우벨이 제각기 연주를 시작한다. 스위스 어디에서나 연주되는 공짜 연주를 들으며, 베트머알프에서 피서 알프까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약 5km 정도 되는 완만한 하이킹 코스로 호수와 알프스산맥을 바라보며 여유를 느낄 수 있다. 다만 걷기가 불편하거나 가족들과 함께라면 마을마다 이어져 있는 케이블카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방법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스위스 관광청이 선정한 ‘가족을 위한 최고의 여행지’답게 아동용 물품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모차나 휠체어를 끌고 즐길 수 있는 무장애 하이킹 트레일을 갖추고 있다. 피서알프에 도착하면 알레치 아레나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에기스 호른으로 향할 수 있는데 직접 하이킹을 하거나, 케이블카 탑승 중 선택할 수 있다. 높이 600m, 길이 4.5km의 코스는 쉬이 도전할 만한 길이 아니기에 케이블카에 탑승하는 것을 추천한다. 오르다

보면 굽직한 바위와 암벽이 가득한 풍경 위로 향한다. 종종 작은 개미처럼 암벽 타는 사람들의 손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여 분 뒤 케이블카에서 내려 승강장에 발을 디디면 무채색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방문자를 반겨준다. 화색빛 돌이 커져이 쌓여 이루어진 돌산 어귀로 새하얀 파리를 튼 알레치 빙하가 보인다. 굽이진 협곡 옆으로 작고 큰 돌들이 무더기로 쌓여 만들어진 봉우리가 있다. 에기스 호른은 약 3,000m에 달하는 높은 고도 탓에 금세 숨이 차오르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알레치 빙하를 내려다본다는 기대감이 나를 지치지 않게 했다. 바닥의 짙은 돌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꼭대기에서 낯선 세계에 푹 떨어진 것만 같은 외로움을 만끽해 본다. 가파른 언덕 아래로 보이는 빙하는 하얀색보다 푸른색에 가깝다. 톱아보면 바퀴 자국처럼 보이는 모레인(빙퇴석)으로 빙하가 녹으며 모래와 돌이 섞여 특별한 텍스처를 이룬다. 유럽에서 가장 긴 빙하라는 이름에 걸맞게 6만 년 동안 얼고 녹고를 반복하며 시간이 지난 자리에 바퀴 자국을 깊이 새겨 놓았다.

봉우리까지 하이킹이 어렵다면 전망대를 추천한다. 협곡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전망대에서 아이거, 융프라우 등 수없이 펼쳐진 하얀 봉우리들을 파노라마 뷰로 감상할 수 있다. 다양한 여행지를 다니다 보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풍경이 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던 휴게소 직원은 알레치 빙하의 감소율이 매년 최대 해빙량을 갱신하고 있어 십수 년 후면 알프스만 년설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2001년 알레치 빙하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지금까지 약 20%가 해빙되면서 갈수록 빠르게 소실되고 있다는 점은 여행자의 입장에서 절망적이다. 대자연이 선물한 멋진 풍경을 우리 스스로 내던지고 있는 셈이다. 경각심으로 말미암아 동화 같은 풍경들이 오래도록 같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를 기도해 본다.

1. 스위스 그랜드 투어 붉은색 표지판. 이 표지판만 따라가면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2. 여름철, 베트머알프에서 피서알프까지 걷는 길 위의 풍경.
3. 푸른 초원에서 보는 알펜볼릭 호텔과 예배당도 근사하다.





떠오르는 커피 거인, 요즘 세계의 커피인들이 인도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2023년 4월에 중국을 앞지르며 세계 1위 인구를 지닌 국가가 되었다. 게다가 30세 이하 인구만도 7억 이상이다. 2022-23년의 경제성장률은 7.2%를 보일 정도로 최근 수년간 경제 성장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뿐 아니라 인도 출신 경제인들은 세계 첨단 기업의 CEO로 활약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 등이 대표적이다.

글. 이길상[커피인문학자, 교육학박사] 일러스트. 마시



01. 차의 나라에서 커피의 나라로

인도 소비문화의 고급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서구인들의 소비 패턴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커피 소비의 급증,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관심 증가도 이런 경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인도와 커피, 커피와 인도. 오랫동안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다. 인도는 오래된 차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한 탓이었다. 차 생산량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인 나라가 인도이고, 차 총소비량 역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니 그럴만하다. 그렇다고 1인당 차 소비량이 최고는 아니다. 1인당 차 소비량 1위는 튀르키예이고 중국은 19위, 인도는 27위에 불과하다. 차의 나라는 튀르키예다. 튀르키예는 중국에 비해 1인당 차 소비량이 5배, 인도의 10배 수준이다. 일본과 중국에 이어 최근 튀르키예가 커피에 빠진 것을 보면 차문화가 커피 소비의 확산에 큰 장애물이라는 속설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아일랜드가 1인당 차 소비량에서 세계 2위이고 영국이 3위이지만 이들 국가의 1인당 커피 소비량도 꽤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일본이 1인당 차 소비량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커피 대중화를 이룬 것도 이런 속설의 설득력을 낮게 만드는 사례다. 커피를 우리보다 먼저 즐기기 시작한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캐나다, 스위스, 미국, 핀란드, 프랑스도 1인당 차 소비량에서 우리나라를 앞선다. 이제 세계인들의 이목은 인도로 향하고 있다. 특히 커피 산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최근 10년 중국의 커피 소비가 증가하면서 세계 커피 원료시장의 가격이 흔들린 것이 타산지석이다. 만일 인구 대국 인도의 커피 대중화가 시작되면 커피 원료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은 뻔해 보인다. 세계 커피인들이 인도를 바라보며 느끼는 설득력 있는 우려감이다.



인디안 커피하우스

대학가의 지식인과 학생들이 자주 만나는 장소이자 정기적인 모임 장소이다.



02. 커피 생산량과 소비량의 급격한 증가

인도에서 커피 생산이 본격화한 것은 1840년대였다.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이 플랜테이션 산업의 하나로 커피 재배를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커피 생산이 절정에 달했던 1870년대에 실론에서 시작된 커피 녹병이 인도 대륙을 덮쳤다. 인도의 커피 산업은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말았다. 커피 농장은 대부분 차 농장으로 바뀌었다. 당시 인도 지배하에 있던 실론도 마찬가지였다. 20세기 들어 몇 차례에 걸쳐 나타났던 세계적인 커피 붐을 타고 인도 커피 생산은 점차 증가하여 왔다. 국제커피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인도는 커피 생산량이 연 36만 톤 수준으로 세계 7위의 국가다. 세계 커피인들이 인도에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도 커피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 추세다. 최근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등 커피 생산지 대부분에서 기후 이상으로 큰 폭의 생산량 감소가 나타났고, 이것은 커피 생두 가격의 상승에 부채질을 하였다. 이런 세계적 위기 속에 인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연 10퍼센트 이상의 생두 생산 증가를 보인 유일한 생산국으로 기록되고 있다. 세계 커피 생산량의 감소와 거래 가격 상승 국면에서 세계의 많은 커피산업 종사자가 인도에 주목하는 이유다. 14억 이상의 인구, 세계 7위의 영토를 가진 인도의 중남부 지역 대부분은 커피 재배에 적당한 기후를 가진 커피벨트에 속한다. 커피벨트 지역만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커피 재배에 유리한 곳이 바로 인도다. 한동안 인도 커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몬순커피’ 하나였다. 인도 서쪽 해안에서 몬순 바람을 맞고 발효된 커피를 일컫는다. 산미는 낮고 바디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양한 맛과 향을 지닌 고급 커피가 적지 않게 생산되고 있다. 생강이나 계피 농장 주변에 있는 커피 농장에서 생산된 인도 커피에서는 미묘한 매운맛이 느껴지고, 오렌지나 바닐라, 바나나 농장 주변의 커피 농장에서 생산된 커피에서는 복합적 과일향과 단맛이 나기도 한다. 커피 소비의 급격한 증가도 세계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새로운 커피 브랜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젊은이들의 취향을 존중하는 스페셜티 커피 시장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40년간 인도 커피의 수출을 위주로 사업을 하던 인도의 대표적 커피 기업 알라나 그룹(Allana Group)이 인도 국내 커피 소비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최근이다. 몇몇 인도 국내 커피 브랜드와 카페의 인기가 드러나기 시작한 최근의 흐름, 그리고 2012년 미국 스타벅스의 인도 진출도 인도의 커피 소비 증가에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해외 유학생들의 귀국, 이들에 의한 서구 카페문화의 전파도 커피 소비를 불러온 또 다른 배경이다. 사고 장소로서 카페가 지닌 가치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팬데믹이 불러온 세계적 홈 카페 문화는 인도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커피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03. 인도 커피 문화의 성장 어디까지

20년 전에 토종 커피체인점 ‘바리스타’가 문을 열었을 때, 비싼 커피 가격과 강력한 차 소비문화의 벽을 넘지 못해 고전하였다. 이후 인도의 스타벅스라 불리며 1,5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커피데이’를 비롯하여 토착 카페가 하나둘 등장하면서 커피 문화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인도에는 독특한 커피 레시피로 커피 소비 증가에 한몫하는 것이 있다. 비튼커피(Beaten Coffee)라 불리는 달달한 커피로, 인스턴트 커피 가루, 설탕, 물을 1:1:1 비율로 넣고 수백 번 저어서 크림화한 후, 우유에 올려서 마시는 음료다. ‘인디안카푸치노’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한국식 달고나 커피와 매우 비슷하다. 달고나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 가루, 설탕, 뜨거운 물을 넣고 휘저어 크림화한 다음, 우유를 올려서 마시는 음료다. 우유와 커피의 위치, 재료의 비율만 다를 뿐 맛은 거의 같다. 한국식 달고나 커피의 유행과 함께 ‘비튼 커피’도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다. 물론 인도의 경우 커피 소비의 지속적 확대를 막는 물론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 수준의 고급 커피를 마시기에는 평균적인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아직은 낮다. 대부분의 차 한 잔 가격이 0.2달러 수준인 나라에서 4달러를 주고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의 사치다. 아직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2달러 내외인 나라 사람들이 이 시간당 10달러를 받는 서구인들의 소비를 흉내 내는 데 한계가 있다. 다양한 요인이 결합하여 만든 인도의 커피 소비 증가는 희망이며 공포이기도 하다.

차 소비국 이미지를 지니고 있던 대표적인 나라들이 한 세대 만에 영국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에 이어 인도까지 커피 소비국으로 변하고 있다. 차 문화가 발전한 지역에 커피가 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속설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 듯, ‘차든 커피든 마셔본 사람만이 마시는 음료의 가치를 안다’는 새로운 속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인도의 커피 소비와 생산 동향, 매우 조심스럽게 지켜볼 일이다.



‘오목해시계, 시간을 나누어 주었던 백성에게



청동제 오목해시계
〈조선 후기, 보물 제845호, 지름 24.3cm × 높이 10cm, 국립고궁박물관〉

요즘 사람들은 하루를 24시간으로 쪼개어 시간대별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보낸다. 이때 24시간을 알려 주는 것은 손목시계, 벽시계, 슬기말틀(스마트폰), 건강시계(스마트워치) 따위로 주변에 시각을 알려 주는 것들은 지천으로 깔려있다. 그러나 이런 문명의 이기가 없었던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알았을까? 인류 최초의 시계는 해였다. 그러나 해만 올려다보고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림자의 길이로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가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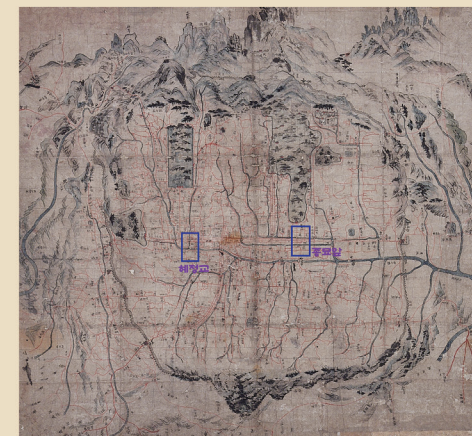
글. 김영조[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우리문화신문 발행인]

세종, 오목해시계를 백성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라

전통사회에서 하늘의 움직임을 살펴 역법을 정하고 하늘의 이치를 따져 농사에 필요한 때를 알려 주는 것은 임금이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으며,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세종 때에는 다양한 해시계, 해와 별로 시간을 알 수 있는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 주는 장치를 갖춘 물시계인 ‘자격루(自擊漏)’ 등을 만듦으로써 시간을 권위의 상징물로 여기는 데 그치지 않고 백성에게 시간을 나눠주는 데 애를 썼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오목해시계’를 세종 16년(1434) 10월 2일 혜정교(惠政橋, 지금 교보문고 광화문점과 광화문 우체국 사이에 있었던 다리)와 종묘 앞 두 곳에 처음으로 설치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당시 혜정교와 종묘 남쪽을 지나 서대문과 동대문까지 한양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대로는 백성이 많이 다니던 곳이었는데 이곳에 오목해시계를 설치해 백성들에게 시간을 돌려준 것이다.

여기서 오목해시계를 한자로 ‘양부일구(仰釜日晷)’라 하는데 이는 ‘하늘을 떠받드는 가마솥’과 같이 오목한 모양의 해시계라는 뜻이다. ‘일구’는 ‘해그림자’라는 뜻으로 해시계를 이르는 말이다. 보통 해시계는 해그림자가 표시되는 시반면(時盤面)이 평면이 많았는데, 오목해시계는 특이하게도 시반면이 오목한 반구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큰 특징이다.



도성도 〈작가미상, 조선시대, 65.5cm×74.5cm, 국립중앙박물관〉
오목해시계가 설치되었던 혜정교와 종묘 앞

그러나 세종 때 제작된 다른 과학기구들이 남아 있지 않듯이, 세종 때 오목해시계도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대신 17세기 이후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제작된 오목해시계들은 많이 남아 있어서, 오목해시계의 전통이 조선 후기 내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세종 때에 만들어진 오목해시계의 중요한 특징인 12지신 그림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오목해시계는 없다.

토끼·용·뱀·말 등을 새겨 넣어 백성들이 쉽게 알도록 하라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1437) 4월 15일 기록에는 “무지한 남녀들이 시각에 어두우므로 양부일구 둘을 만들고 안에는 시신(時神)을 그렸으니, 대저 무지한 자가 이를 보고 시각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한자로만 표기했을 때 한자를 모르는 백성은 그림의 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종임금은 12지신을 새겨 넣어 누구나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卯時, 辰時, 巳時, 午時, 未時처럼 한자로만 써넣으면 한자를 아는 양반만을 위한 시계일 수밖에 없다. 대신 새벽 5~7시를 뜻하는 묘시(卯時)는 토끼, 7~9시를 가리키는 진시(辰時)는 용, 9~11시를 말하는 사시(巳時)는 뱀, 11~1시를 뜻하는 오시(午時)는 말, 낮 1~3시를 가리키는 미시(未時)는 양을 새겨 넣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종 때 펴낸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 1445)》과 정조 때 펴낸 《국조상역고(國朝曆象考, 1789)》에서는 오목해시계의 본보기가 원나라의 천문기구 제작자 곽수경(郭守敬)이 만든 ‘양의(仰儀)’라고 하였다. 그런데 양의는 해시계 기능 말고도 일식·월식 관측이 가능한 천문기구였고, 반구의 지름이 오목해시계의 10배에 가까울 정도로 컸다고 한다.

양의가 실제 중국에서 제작되어 쓰였다는 기록이나 현존하는 유물은 없지만, 만일 그것이 제작되었다면 궁궐이나 전담 관청에 설치되어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상징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천문 관측을 통해 하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임금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세종의 오목해시계가 12지신 그림을 새겨 놓고 혜정교 등에 설치해 시간을 온 백성에게 나눠주려 했다는 것은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온 백성에게 골고루 나눠주려고 한 성군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이다.

휴대용으로 제작된 강운과 강건의 오목해시계

오목해시계의 제작 목적은 당시 집현전 직제학(直提學)이었던 김돈(金墩, 1385~1440)이 지은 양부일구의 명문(銘文)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설치해 베푸는 것 가운데 시각을 알려 주는 것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

12지신을 그려 넣은 것은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시간과 분(分)이 뚜렷한 것은

해에 비쳐 밝은 것이요, 길 옆에 설치한 것은 보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

오목해시계는 대부분 글을 읽지 못했을 백성들이 시각을 알 수 있도록 12지신 그림을 새겨 넣었다는 점, 백성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가에 설치했다는 점에서 백성을 위한 공중 시계였음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백성을 근본에 두는 민본정치를 추구하고자 했던 세종의 뜻이었다.

이 오목해시계가 발전하여 고종 18년(1881) 강윤(姜潤, 1830~1898)과 동생 강건(姜健, 1843~1909) 형제는 휴대용 오목해시계를 만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휴대용 오목해시계(보물)는 동생인 강건이 만든 것으로, 세로 5.6cm, 가로 3.4cm, 높이 2cm 정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해시계다. 시반면을 오목한 반구형으로 깎아 내어 선을 긋고 청동으로 된 시겟바늘을 세웠는데 시반면보다 약간 더 작은 원통형의 면을 파서 나침반도 설치했다. 휴대용 해시계는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야 제 시각을 알 수 있으므로 나침반을 함께 넣어 만든 그야말로 휴대용에 맞는 해시계다.



12지신 그림을 넣은 오목해시계 복원가상도
세종 때의 오목해시계는 이랬을 것이다(김슬옹 교수)

휴대용 오목해시계
〈조선시대, 5.6cm×3.4cm×2cm, 보물 제852호, 국립중앙박물관〉

새로운 땅에서 기쁨의 선율을 짓다 드보르자크와 ‘신세계 교향곡’

#기쁨



#악기

지독한 가난과 무명 음악가의 길을 묵묵히 버텼던 체코의 음악가, 안토닌 드보르자크. 그의 대표작 ‘신세계 교향곡’은 그가 미국국립음악원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작곡한 작품이다. 새로운 땅에서 발견한 새로운 기쁨이 가득한 노래다.

글. 정은주[음악 칼럼니스트]



1966년 독일 베를린 필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카라얀이 음반 녹음을 위해 했던 연주.



2019년 지휘자 마리스 안손스가 로열 콘서트헤보 포디엄에서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 했던 연주.



2023년 독일 본의 베토벤하우스에서 지휘자 파보 예르비와 스위스 톤 할레 오케스트라의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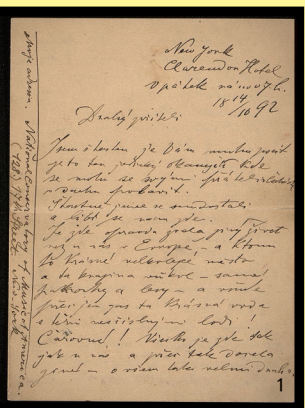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길고 긴 겨울밤 끝 찾아온 봄날

안토닌 드보르자크(1841~1904)는 현재 체코 프라하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벨라호제베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14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집안 형편은 여유롭지 못했다. 아버지가 정육점을 운영했는데, 그의 부모는 그의 음악적 재능과 영특함을 알아보고 최대한의 교육을 시키려 노력했다. 그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13세에 집을 떠나 오르간, 피아노, 바이올린, 음악 이론을 공부했다. 16세에 프라하로 유학을 떠난 그는 프라하 오르간 학교에 입학, 졸업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전문 음악가로 경력을 시작하기가 어려웠다. 작은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로, 오케스트라의 비올라 연주자로 활동하며, 그가 사랑한 음악을 최소한으로 이어갔다. 당시 그는 너무 가난해서 음악회표를 살 돈이 없었는데, 성당에서 일하던 시절 공짜로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는 회고를 남겼다.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형편은 어렵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던 그는 작곡가의 길을 고집하기로 했다. 30세쯤 하던 연주 일을 모두 그만두고 작곡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그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수여하는 작곡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곧 당시 저명한 음악가였던 요하네스 브람스(1833~1897)가 그의 작품을 열정적으로 홍보해주었다. 당시에는 작곡가가 출판하는 일이 무척 어려웠는데, 이를테면 브람스가 자신의 작품을 출판할 때, 드보르자크의 작품을 한 두 곡 실어주는 식으로 그의 작품을 세상에 알려주었다. 이렇게 드보르자크는 음악가로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했다. 굳이 5~6세에 세상에 이름을 알렸던 모차르트와 비교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분명 다소 늦은 감이 있는 성공이었으며 동시에 묵묵히 한 길을 걸었던 노력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다.



1. 드보르자크가 1892년 10월 14일 미국에서 쓴 편지.
2. 드보르자크가 미국의 유색인종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하고 공부하게 해줬던 미국 국립음악원 전경.

이후 그가 작곡한 작품들은 유럽 전역과 영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프라하 국립 음악원과 미국 국립음악원의 교수(원장) 임용으로 이어졌다. 1892년부터 약 3년간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그가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유색 인종 학생들의 음악 교육이었다. 음악에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인 형편과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백인과 흑인을 합법적으로 분리하려 했던 짐 크로법의 영향 속에서 유색 인종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모집했다. 1892년 10월 14일 그는 “우리는 모든 종류의 음악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편지로 남겼다. 그의 행동에 대한 여러 비판의 시선이 강했지만, 늘 약자의 편에서 살아왔던 그였기에 더 더욱 가능한 선택이었다. 그는 학교에 입학한 유색 인종 학생들과 교류하며,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고유의 문화, 음악에서 여러 영감을 받았고, 그의 마지막 교향곡인 ‘신세계 교향곡’, 〈현악 사중주 12번, Op.96〉‘아메리카’ 발표로 이어졌다.

미국 역사에서 그가 미국국립음악원에서 백인 학생과 유색 인종 학생들이 함께 음악 교육을 받게 한 일은 미국의 유색 인종 학생들이 일구기 시작한 미국 속 유색 인종 음악의 큰 터전이 되었다. 보헤미아의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던 한 사람이 사랑하던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미국에서 배척 받던 유색 인종 학생들과 음악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밝고 기쁘고 씩씩한 '신세계 교향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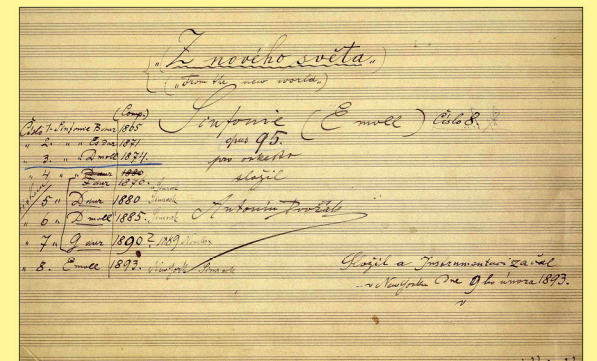
1892년 10월 21일 미국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드보르자크의 〈테 데움, Op.103〉‘콜럼비아’가 세계 초연되었다. 드보르자크가 직접 포디엄에 올라 300명의 합창단과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큰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미국의 백만장자이자 교육자였던 재닛 서버(1850~1946)가 콜럼버스 데이 400주년을 기념, 프라하 음악원에 재직 중이던 드보르자크에게 위촉했던 작품이다. 이날 공연에 앞서 당시 미국의 정치가이자 군인이었던 미국의 정치가였던 토마스 하킨슨(1823~1911)이 축하 연설을 했는데, 그는 “오늘 밤 우리의 손님 드보르자크가 콜럼버스가 발견한 새로운 대륙에 새로운 음악 세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는 말을 남

겼다. 다음 날 아침 〈뉴욕 헤럴드〉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던 하킨슨의 연설은 진짜 현실이 됐다. 정확히 7개월 후 드보르자크는 〈교향곡 9번 e단조, Op.95〉‘신세계 교향곡’을 완성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새로운 곳에서 이미 존재했지만 늘 외면당했던 유색 인종들의 고유한 음악에서 드보르자크가 영감을 얻어 새롭고 어쩌면 낯선 음악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의 흑인 멜로디에서 나는 위대하고 고귀한 음악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음악은 애처롭고, 부드럽고, 열정적이며, 우울하고, 엄숙하고, 종교적이며, 대담하고, 명랑하고, 쾌활하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다”

드보르자크는 당시의 행보와 ‘신세계 교향곡’ 발표를 앞두고 〈뉴욕 헤럴드〉(1893년 5월 21일 자 40페이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유색 인종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던 솔직하고 당당한 마음을 밝혔다. 그 누구보다 드보르자크 스스로가 작곡가로 스승으로 또 소외받던 한 사람으로, 그 어느 시절보다 자신감과 기쁨을 만끽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런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일까. ‘신세계 교향곡’은 밝고 기쁘다. 또 씩씩하고 당당한데, 새로운 처음 듣는 신비한 이야기가 담긴 듯한 느낌마저 든다.

1892년 5월 24일 세간의 환영과 그 반대 분위기 속에서 등장했던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은 총 4악장으로 구성되었다(1악장 아다지오-알레그로 몰토, 2악장 라르고, 3악장 몰토 비바체, 4악장 알레그로 콘 푸오코). 이 작품은 같은 해 12월 16일 카네기홀에서 지휘자 안톤 자이들의 지휘로 뉴욕필하모닉 소사이어티가 초연했는데, 당시 청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오늘날까지 오케스트라 연주회의 단골 레퍼토리로 사랑받고 있다. “지금부터 미국의 미래 음악은 흑인 멜로디라고 불리는 노래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확신한다”는 그의 인터뷰 속 바람은 한 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피어난 그의 예술 세계는 콜럼버스가 발견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선율로 긴 긴 여정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그의 삶처럼 긴 긴 밤을 견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밝게 비춰 줄 모두를 위한 음악의 빛으로 계속 반짝일 것이다.



자필 사인이 있는 드보르자크 '신세계 교향곡' 원본 악보.



흑독한 겨울에 마주한
고립무원의 철옹성

남한산성

병자호란은 1636년 12월 28일부터 1637년 2월 24일까지 조선과 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성난 파도 같은 청의 대군에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남한산성으로 몸을 숨겼다. 과연 47일간
남한산성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흑독하게 추웠던 당시 그 현장으로 떠난다.

글/사진. 임운석[여행작가]

#‘삼전도의 굴욕’이 있기까지

임진왜란은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에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었다. 이 전쟁을 통해 조선과 명의 국력은 극도로 쇠약해진 반면 북방 민족인 여진족은 세력을 키워 후금을 건국했다. 후금은 만주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며 만리장성을 넘어 북경 부근까지 공격했다. 그러면서 후금이 조선을 침입했던 정묘호란(1627) 때 맺은 ‘형제의 맹약’을 ‘군신의 맹약’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조선은 그들의 요구에 무시했다. 도리어 후금에 대해 선전 포고 움직임까지 일었다. 조선 16대 임금 인조(1595~1649) 역시 조정 대신 대부분이 척화를 주장하는 터라 그들의 뜻에 동조했다. 조선의 의도를 간파한 후금은 재침입을 결심하면서 나라 이름을 ‘청’으로 고치고 독자적인 연호를 반포했다. 또한 태종은 황제의 칭호를 받았다. 그러면서 조선의 왕자, 대신, 척화론을 주창하는 자를 압송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조선은 그들의 요구를 몽개버렸다. 이에 청은 조선에 재차 침입을 감행했다. 이것이 병자호란(1636~1637)이다. 청 태종은 12만여의 대군을 이끌고 직접 조선 침입에 나섰다. 청군은 밤낮을 달려 심양을 떠난 지 10여 일 만에 한양 인근까지 도착해 강화도로 가는 길목마저 막아 버렸다. 조선은 예상치 못한 청군의 급습에 놀란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남한산성으로 피란했다. 그나마 이조판서 최명길(1586~1647)이 청군 진영에 나가 술과 고기를 대접하면서 출병의 이유를 물으면서 시간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후 조선은 청의 대군에 맞서 남한산성에서 항전 의지를 굳혔다. 그러나 모든 여건은 조선에 불리했다. 날씨는 혹독하게 추웠으며 성안에는 50여 일을 견딜 수 있는 식량이 전부였다. 다음 해가 밝자 청 태종은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포위했다. 시간이 갈수록 성안의 현실은 나빠졌다. 배고픔과 추위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횡행했다. 이전까지 철옹성이었던 남한산성이 고립무원에 빠진 셈이다. 악재가 거듭되자 강화론을 주장하던 최명길에게 힘이 실렸다. 물론 예조판서 김상헌

1. 피란 온 인조는 지화문(남문)을 통해 남한산성에 들어섰다.
2. 남한산성은 험준한 산악지형에 축성됐다.
3. 남문에서 동문으로 이어진 남한산성 성곽. 성곽은 여장, 타구, 총포, 포루를 두루 갖추었다.



(1570~1652)을 필두로 한 주화파의 반대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난국을 타개할 만한 묘책이 없었던 터라 대세는 강화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운 것이다. 1637년 1월 3일 최명길(최태종)이 청 태종에게 화평을 요청하는 글을 보냈으나 청 태종의 뜻은 달랐다. 임금이 친히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고 척화주모자를 보내라는 것이다. 그 소식에 남한산성엔 날카로운 칼날이 드리운 것 같았다. 하지만 1월 21일 이후 청군이 강화도를 함락하자 인조는 더는 출성과 항복을 늦출 수 없었다. 인조는 47일간의 항전을 끝내고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삼배구고두(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를 하며 항복했다. 이는 조선 역사에서 큰 치욕으로 기록되며 ‘삼전도의 굴욕’으로 불린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

우리나라는 산성의 나라였다.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동시에 외침이 많았다는 증거다. 남한산성은 삼국시대 한반도의 패권을 결정짓는 요충지였다. 백제 시조 온조왕(?~28)의 사당인 송열전이 여기 조성된 배경이 그것이다. 고려가 몽골군과 맞서 싸웠던 곳도 여기다. 남한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한 것은 조선 인조에 이르러서다. 그때 왕이 거쳐할 227칸의 행궁도 함께 지어졌다. 이렇듯 남한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국난이 있을 때마다 항쟁의 거점이 된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이다. 여러 산성 가운데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유가 있다. 남한산성은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25km 떨어진 해발 480m 이상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축성한 산성 요새다. 특히 눈여겨볼 게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전파된 서구의 화기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기술이 집약됐다는 점이다. 방어시설인 옹성, 총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담장인 여장, 활과 총과 대포를 쏘는 타구, 총안, 포루 등이 대표적이다. 즉, 화약 무기



가 등장한 이전과 이후의 방어와 축성술의 변화 양상을 잘 볼 수 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예증해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는 행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행궁은 도성 밖에서 임금이 거쳐하는 곳으로 비상시에는 임금과 조정의 피란성이 된다. 이곳 행궁에는 임금이 정사를 보는 정정과 똑같은 형태의 업무 공간과 침전은 물론이고 좌전(종묘)과 우실(사직)까지 갖췄다.

유난히 추운 남한산성 답사

행궁이 있는 산성종로는 늘 북빈다. 식당도 많아 수도권의 대표적인 나들이 명소로 이름났다. 1코스를 따라나선 길. 처음 지나는 곳은 북문이다. 정조 3년(1779년)의 성곽 개보수 때 전승문(全勝門)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다시는 병자호란과 같은 치욕을 당하지 말자는 뜻이다. 이 문을 지나고 나면 길은 성곽을 따라 서문으로 1km가량 이어진다. 눈에 뒤덮인 남한산성은 길이 가파르다. 서문 못미처 성벽에 돌출된 옹성이 보인다. 옹성 위는 전망대가 된다. 멀리 한강과 하남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이어 우익문이라 불리는 서문에 도착한다. 이 문은 1637년 인조가 청 태종에게 항복하기 위해 나섰던 문으로 삼전도와 가장 가깝다. 남한산성은 주변 산세와 굳건한 성벽을 봐서는 쉽게 함락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남한산성은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조도 여기에 몸을 숨긴 것이다. 그러나 항거의 한계는 47일에 그쳤다. 추위와 배고픔, 심장을 옥죄는 고립감과 공포심을 더는 견딜 수 없었으리라. 발걸음을 재촉해 수어장대에 이른다. 인조 2년(1624) 남한산성 수축 당시엔 4개의 장대가 설치됐다. 그러나 현재 남은 것은 이게 유일하다. 인조는 여기서 직접 군사를 지휘했다고 한다. 당시엔 단층 누각이었지만 영조 27년(1751)에 2층으로 증축돼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수어장대’라고 쓴 편액이 걸린 것도 그때다. 성곽을 따라 1km쯤 걸어가면 지화문이라 불리는 남문에 닿는다. 남한산성의 4대문 가운데 가장 크다. 피란 온 인조는 이 문을 통해 남한산성에 들어섰다. 묘한 부조리가 감지된다. 삼국시대부터 있던 남한산성을 더욱 강력하게 수축한 이가 인조인데 정작 그 임금이 10년 후 적군에 쫓겨 이 성에 갇히고 중국엔 눈물을 흘리며 항복의 길을 나서게 돼서다.

1. 임금의 침전이 있는 행궁의 내행전.
2. 좌전에서 바라본 남한산성 행궁.
3. 영조 27년(1751)에 2층으로 증축된 수어장대.



겨울철 쫄득한 영양 덩어리 ‘과메기’

가을부터 바다에 찬물이 들면 바야흐로 쫄치의 계절이 시작된다. 감칠맛 좋은 ‘등푸른생선’ 중 가장 흔하고 값이 싼 쫄치는 서민들의 단백질 원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다. 날이 추워지면 웬만한 집 밥상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저렴한 구릿감으로 그동안 국민 건강을 책임졌다.

글/사진. 이우석[농고역기연구소장]



과메기의 본모습은 ‘쫄치’

정어리처럼 군집 생활을 하는 쫄치는 한 번에 많이 잡히니 값이 저렴하다. 근해산이 드물어도 수입 가격이 안정적이라 괜찮다. ‘국민 생선’ 고등어보다도 싸다. 게다가 연하고 맛까지 좋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요즘 백반집이나 횡집에선 으레 쫄치 소금구이를 내준다. 횡감으로는 보기가 어려운데 이유는 활어로 살려놓기 딱 어려운 까닭이다. 그물에서 끌어올리자마자 죽어버린다. 게다가 혈액 성분인 미오글로빈이 많아 산패도 빠르다. 그래서 횡감 쫄치를 접하기란 썩 어려운 일이다. 다만 제주도나 울릉도 등 바닷가 산지 부근에서는 갓 죽은 덕(?)에 신선한 쫄치를 회로 맛볼 수 있다. 육지에서는 회로 먹을 수 없는 대신 과메기로 먹는다. 쫄치나 청어를 겨울철 바닷바람에 말린 과메기는 과연 독특한 식문화다. 산패 걱정이 덜한 겨울에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다. 똑같이 겨울 내내 말려야 하는 황태와도 또 다르다. 기름기 많은 특유의 성질도 차이가 나지만 바람을 맞혀야 하는 덕장의 조건도 황태와는 차이가 있다. 기간도 봄까지 걸어두는 황태처럼 길지 않고 며칠 정도면 충분하다. 수분이 빠지고 지방이 올라오면 맛과 식감이 달라져 생물 상태와는 확연히 다른 식품이 된다. 예전에 노끈으로 눈을 꿰어 줄줄이 말렸대서 ‘관목(貫目)’이라 불렀던 것이 음운 변화를 겪으며 과메기가 됐다고 한다. 말린 청어 자체를 아예 관목이라고 불렀지만 요즘 과메기는 주로 쫄치로 만든다. 경상북도 포항 구룡포와 영덕 등 인근 지역에서 내세우는 향토 먹거리다. 살집이 좋은 청어는

예전에 우리 바다에서도 ‘물 반 청어 반’할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개체수가 줄었다. 그 바람에 쫄치에 밀려 과메기의 주재료에서 떨어져 나갔다.

해조류 곁들이면 맛과 영양 가득

과메기는 통으로 해풍에 말려서 만들었다지만, 요즘은 배를 따고 반으로 갈라 자체 덕장에서 송풍기로 말려 파는 것이 더 많다. 산패하기 쉬운 재료라 날이 단단히 추워야 만들 수 있으니, 제조나 판매 기간이 짧다. 특히 배를 따서 만든 ‘편과메기’보다 내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통과메기’는 좀 더 추울 때부터 시작하고 훨씬 오래 말려야 한다. 만들기 까다로운 대신 동결건조 과정에서 내장 지방이 살점에 녹아들어 식감이 더 부드럽고 풍미가 진해 높은 값을 받는다. 고탄수 단백질과 지방의 집합체인 과메기는 생미역과 다시마, 김 등 다양한 해조류와 쪽파, 마늘, 고추 등 향신채 등에 곁들여 먹으니 영양 균형도 맛도 좋다. 특히 쫄치 자체의 풍미 진한 붉은 살에는 아미노산과 불포화지방산도 풍부히 함유했다. 그중에서도 다가불포화지방산(오메가3)은 쫄치 기름에 가장 높은 함량으로 들었다. 겨울 별미로 찾아온 검은 진객, 과메기 한 접시에 그만 추위를 잊고 만다. 마침, 제철인 해조류와도 궁합이 맞으니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영양 보충에도 딱이다. 쫄득한 햇과메기를 칼칼한 양념장을 듬뿍 찍어 질경질경 씹고 있자니 턱밑이 훈훈해진다. 문득 겨울나기에 자신이 생겼다.

영덕막회

상호만 딱 봐도 영덕군 향토 음식인 막회가 연상된다. 여름철 물회와 막회로 유명한 집인데 겨울철이면 과메기를 찾는 이들이 많다. 현지에서 공수한 과메기를 차려낸다. 생미역과 다시마 등 갖은 해조류에다 생마늘, 마늘즙, 쪽파 등을 함께 써서 먹도록 차려준다. 과메기와 제철 해조류가 만난 씹의 조합도 입에 착 붙는다. 생미역의 매끈한 식감이 아삭한 쪽파와도 잘 맞는다. 밀가루를 거의 섞지 않고 가자미살을 으개서 빻아 구워낸 가자미 부추전도 별미.

📍 서울 중구 을지로3길 33, 2층.



연신내 포항물회

포항 구룡포에서 가져다 파는 과메기가 맛있기로 소문난 집. 늘 멀리서도 물려와 문전성시를 이룬다. 과메기 자체 품질도 좋지만, 싱싱한 해조류를 푸짐히 곁들이고 특유의 양념장도 맛이 좋아 여느 과메기 식당과 차별화된다. 가을 겨울엔 과메기를, 다른 계절엔 방어와 새우 등 시즌별로 제철 횡감을 파는데 때 되면 이를 찾는 단골층이 두텁다. 다양한 모듬 해산물과 전복 등 해물로 구성된 안주 거리도 구성이 좋다.

📍 서울 은평구 통일로83길 15-1.



물푸레나무과의 상록수인 올리브나무는 지중해를 대표하는 식물이다. 열매를 얻기 위해 대량으로 재배하기도 하는데, 주로 올리브기름과 피클을 만드는 용도로 쓰인다. 전 세계에 8억 그루의 올리브나무가 있고, 그중 98%는 지중해 연안에서 자란다.

글. 김효정 사진. 김재이

평 화 와
풍 요 의 상 징

올리브나무



Olive Tree

- 학 명 : Olea europaea
- 물 주 기 : 겉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 생육온도 : 15~25°C, 겨울철 휴면기 -5~0°C
- 생육장소 : 베란다나 테라스, 해가 잘 드는 창가

은녹색의 기다란 이파리를 가진 올리브나무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성스러운 느낌이 든다. 햇별이 이 나무를 비추면, 지중해의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다. 사계절 푸른 잎을 볼 수 있고, 우아한 자태의 외형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나무를 키운다. 비교적 관리가 쉬운 식물이지만, 까다로운 면모도 있다.



올리브나무는 과습에 치명적이라 흙이 완전히 마른 후에 물을 주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나무 막대 등을 이용해 흙 속까지 물기가 말랐는지 확인해야 한다. 베란다에서도 월동을 할 수 있지만, -5°C까지 떨어지지 않게 온도 관리가 필요하다. 햇별을 좋아하고, 6시간 이상 많은 빛을 받게 해야 열매를 맺는 건 강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 올리브나무는 품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5년 후에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올리브나무가 열매를 맺는 일은 흔하지 않다. 거실에서 올리브나무를 키우고 있다면, 비교적 비슷한 온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계절을 인식하지 못한다. 겨울철 추운 날씨를 겪어야 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올리브나무는 자가수분이 가능하지만, 수분 효과를 높이려면 두 그루 이상 함께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봄과 여름철에 비료를 주면, 열매를 맺을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다.

올리브나무를 심을 때는 pH 6~8 사이의 배수가 잘되는 흙을 골라야 한다. 상토에 마사를 혼합한 식재가 좋으며, 흙 배수층을 잘못 만들면 뿌리 썩음병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올리브나무의 가지치기는 늦겨울부터 초봄(2~3월)이 적기다. 나무가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시기라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 우선 나무 중앙을 비워내서 햇별이 내부까지 잘 들도록 한다. 약한 가지나 교차된 가지, 죽은 가지는 제거해 준다. 가지가 너무 길게 자라면 관리가 쉽지 않으니 적당히 잘라주는 것이 좋다.

올리브나무는 인테리어용으로도 매력적인 식물이지만, 올리브 열매는 화장품이나 의약품, 식용으로 활용하며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품종도 매우 다양한데, 종류에 따라 매력이 다르고 특성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 가정에서 키우기 좋은 품종은 칼라마타, 코로네이키, 만자니요, 아르베키나 등이 있다.

《화분팜》 김태수, 백경선 대표의 ADVICE

올리브나무는 거실보다는 햇별과 통풍이 원활한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조량은 올리브나무의 성장과 열매를 맺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와 함께 통풍이 잘되지 않으면 잎에 진딧물과 각지벌레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잎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응원

일러스트, 나요

#01 마지막 앞새

윤채정_경기도 용인시

쌀쌀한 어느 초겨울이었다. 대학생 남자 조카와 우연히 동네 숲길을 산책할 기회가 있었다. 특이하게도 나무에 푸른색 잎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 실사판 같은 그 이파리가 이미 중년을 훌쩍 넘은 나의 눈엔 추하게 느껴졌다. 기어이 버티며 끝까지 매달려 있는 것이 안쓰럽게 보이는 것을 넘어, 탐욕스럽고 아집에 휩싸여 자신만 생각하는 모리배로 보였기 때문이다. 다른 잎들처럼 순리대로 떨어질 때 떨어져야 거름이 되어 땅에도 좋고 나무에도 좋을 것이었다. 내 생각을 들은 조카는 세대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가 하며 깔깔 웃더니 정색하며 어떻게 이모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지 오히려 자신은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자신은 그 잎을 보면서 주변의 잎들이 다 '자연의 순리'라는 미명하에 추위와 계절 앞에서 저항 한 번 못 하고 순순히 백기를 들고 힘없이 투항한 가운데, 그 나뭇잎만 곳곳이 줄기에 몸을 박고 당당하고 개 들고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그 자체로 너무 멋져 보인다는 것이다. 역경 속에서 굴하지 않은 그 '존재의 빛'이 우리 눈길을 사로잡은 거라며 저 잎은 절대 추하지 않다고 당당하고 환한 미소로 역설했다.

이제 그 당당했던 환한 미소의 조카는 없다. 그저 웅크릴 대로 웅크린 채, 주변에 벽만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는 한 서글픈 영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차라리 어디 다리 하나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으면 회복기를 거치면서 부러진 뼈도 붙으련만... 그는 마음이 많이 아프다. 우울증이다. 대학 졸업 후 뛰어들었던 사회생활이 그를 병들게 했다. 이젠 자신의 방에서 웬만하면 나오려 하지 않는다. 나는 기꺼이 거름이 되고 싶다. 그리고 간절히 바란다. 그가 언젠가의 그 나뭇잎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연히 버티며 당당하게 자신만의 아우라를 발할 수 있기를. 그러나 그를 위한 응원의 말은 침묵 속에 잠시 묻어두기로 했다. 대신 그의 동굴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나의 바람과는 달리 그는 여전히 동굴 밖으로 한 발짝도 떼지 못한다. 앞으로 나는 나를 더 힘차게 응원해야 한다. 절대 지지지 말라고.

남편이 5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합격 연락을 받은 날, 가슴이 벅차올라 환호성을 질렀다. 그렇게 덤던 여름날 날아온 희소식, 10년 만에 우리 집 아침 모습을 바꾸고 있다.

공무원으로 직장을 다니던 남편을 철석같이 믿어 별다른 노후대책과 같은 경제활동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다. 약간의 우울증으로 입원을 했던 남편이 CT 조영제 부작용으로 심정지 사고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다. 이 사고 후유증으로 결국 남편은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어떤 사회생활도 하지 않은 채 10년간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살게 되었다. 갑자기 가정의 역할을 떠안게 된 나는 정말 정신없이 10년을 살아야 했다. 청소년기의 두 아이 뒷바라지부터 집 안팎의 온갖 경조사며 남편의 몸 상태에 따른 병간호까지 맡았다. 남편의 병명이 정신과 질환이라 요즘처럼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때가 아니어서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친척과 사람들의 비난마저 감수했다. 최근에도 도서관에 갔다가 사서 기간제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나이 제한도 없었고 자격증도 있었기에 남편에게 지원해 보자고 설득했다. 10년간의 공백으로 남편은 처음 막 화를 내며 거절하다가 결국 마지막 날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 내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처음 며칠 간은 오랜만에 하는 출퇴근을 힘들어했지만, 이젠 꽤 만족스러워 보인다. 겉으로 보기에도 건강이 훨씬 좋아진 것 같다. 퇴직한 동료와 친구들을 도서관에서 만나면 부럽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기간이 짧은 일자리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는 잘 찾아보면 해마다 있다. 자신감을 회복한 남편은 이제는 겁먹지 않고 도전해 보겠다고, 그간 일하지 못한 공백을 얼마간이라도 채워보겠다고 과거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늘 집안에서 기운 빠진 모습으로 가족을 기다리던 모습에서 이제 당당히 가족의 인사를 받으며 출퇴근을 하는 가정의 모습을 보는 시간,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다시 슬며시 찾아왔다. 힘들었던 시간을 헤쳐 나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남편에게 힘찬 응원을 보낸다. 앞으로도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해 봅시다. 큰 결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당신의 마음이 위대하니까요. 우리 가족 모두 당신을 꼭 응원합니다. 우리 힘든 시간도 묵묵히 이겨냈어요.

#02 당신을 응원합니다

고경은_제주시 삼성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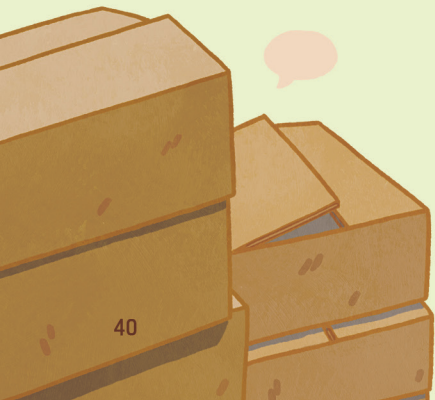


#03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이상화_서울성북구



48년 쥐띠. 올해 나는 일흔넷이다. 돌아가신 엄마는 어린 나에게 집안 일이며 자잘한 심부름을 시킬 때 꼭 이렇게 말했다. “넌 쥐띠라 참바지런해서 잘 살 꺼야.” 부모님 눈치를 잘 살피 일을 도와드리면 그나마 칭찬과 관심을 받았고, 그게 습관이 되었는지 어디 가서 일 못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근면, 성실, 정직하고 묵묵히 일한 덕분에 그 당시 여자가 올라가기 힘들다는 초등학교 교장 자리까지 마치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남부럽지 않은 자리를 60세 조금 넘어 마치고 나니 아직 팔팔한데 할 것이 없었다. 맞벌이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동네 친구조차 없었다. 그나마 학교에서는 젊은 선생님들이 교장이랍시고 말동무를 해주었지만, 그 타이틀마저 내려놓자 그냥 동네 할머니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한 2년 우울한 하루를 보내다 자주 드나들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목적으로 얼마간의 거마비를 주는 자리에 나이 든 사람을 뽑는다는 안내를 보았다. 거마비는 둘째 치고 심심한 시간을 때우고 싶어 지원해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 젊은 사서들은 내가 도서관 여기저기를 분주히 돌아다니자 불편해하는 눈치였다. 엄마뻔로 쳐도 한참은 나이가 많은 내게 선뜻 일을 시키는 것이 꺼려지는 모양이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그들도 나도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 편해졌다. 무엇보다 내 삶의 활력이 생겼다. 간혹 젊은 사서들이 화장실이나 급한 볼일이 생겨 도서관 카운터 자리를 비울 때 내게 부탁하기도 했는데, 그 자리가 무슨 벼슬자리처럼 이용자들에게 책을 대출해 줄 때면 은근히 긴장되기도 했다. 나를 인정받는 느낌, 이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과 나아가 살아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지금은 도서관 일을 그만두고 동네 주민센터 4층에서 박스 접는 일을 한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해 3시간 정도 나와 비슷한 노인네들이 모여 박스를 접는다. 우리는 박스를 접으며 전날 무엇을 먹었는지, 어젯밤 드라마 내용은 무엇인지, 손녀 생일이라 외식을 한다든지, 어느 집 할아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꼭 빼먹지 않는 이야기는 소싯적 잘 나갔던 우리들의 젊은 날에 대한 이야기다. 빛나지 않았던 삶이 하나 없을 만큼 이야기는 끝도 없이 이어진다. 돈을 벌러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다는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 나는 그곳으로 향한다.



#04 이불 밖 세상으로

이상화_수원시 권선구



아들은 이불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 햇빛이 두려운 사람처럼 낮에는 침대와 한몸이 되어 잠을 청하고 밤이 되면 냉장고를 열었다 닫으며 무언가를 찾는다. 그렇게 며칠이 쌓이고 몇 달이 흐르더니 어느새 몇 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이제는 그의 웃음소리조차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알아서 할게요.” 내 온갖 설득과 다짐에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다. 그리고 다시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는 그의 모습에 내 마음은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한때 뭐든 척척 해내던 아들이었고 명문대를 졸업해 모두가 부러워하던 자랑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걸음을 멈추고 혼자 그 자리에 갇혀버린 듯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불안과 좌절이 그의 마음을 잠식한 걸까? 외로움이 그를 이불 속으로 숨게 만든 걸까?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지만,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다. 그래서 화를 내보기도 했다. 하지만 화를 낼수록 아들은 더 멀어졌고 부딪히려 할수록 단단한 벽이 되어갔다.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누구보다 소중한 내 아들이기에... 나는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어 나즈막이 말한다. “아들아, 세상은 생각만큼 무섭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거야. 그러니 걱정 말고 훌훌 털고 일어나렴.”

이 말이 그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도 조용히 기도한다. 세상 모든 신들에게 “제발, 저 훌륭한 자식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 그저 아들 마음에 따뜻한 믿음이 스며들어 다시 걸을 힘을 찾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내딛는 첫 발걸음이 흔들리면 나는 아들 손을 잡아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켜볼 것이다. 일어나라, 아들아. 힘내라, 아들아. 삶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아직 네가 만날 세상은 무궁무진하다. 너는 다시 일어설 거야. 그리고 네가 가는 길을 엄마는 언제나 응원할 것이다.



다음호 주제는 ‘스스로 다스려야 할, 감정’입니다.
‘감정’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분량 200자 원고지 3~4매 (원고 접수 시 주소와 연락처 기재 必) 마감 1월 31일 문의전화 (02)511-7053 이메일 essayds@naver.com
우편 (우) 06530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68, 402호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담당자 앞

※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접수하신 원고는 반환되지 않으며 중복, 표절로 밝혀질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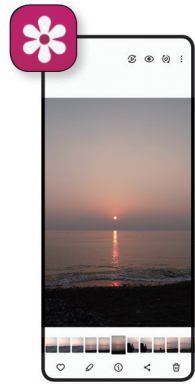
알아두면 편리한 스마트폰 사용법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새해 인사카드’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합니다!

STEP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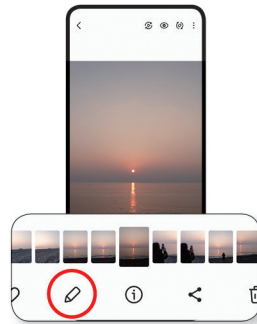
내 스마트폰
갤러리 속
평소 촬영해 둔
멋진 사진을
고른다.

TIP) 복잡한 사진보다는
메시지를 넣을 공간이 있는
깔끔한 사진을 골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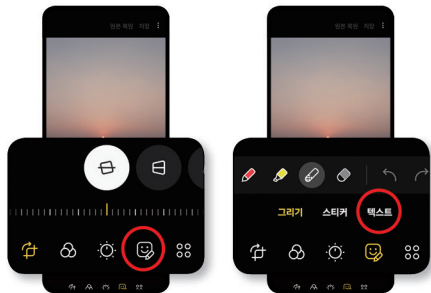
STEP 02

이미지를 골랐다면 하단에
✂ 버튼을 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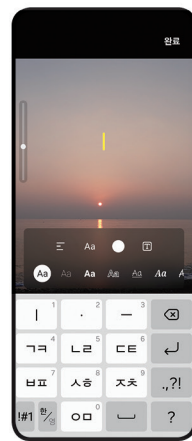
STEP 03

✂ 버튼을 터치한 후
바로 위 텍스트를 터치한다.



STEP 04

하단 키보드를
눌러 사진 위에
글자를 입력한다.



STEP 05

예전엔 손편지로 새해 인사를 전하곤 했다면 이제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다. 올해는 조금 더 특별
하게 나만의 새해 인사 카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쉽
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니 지금 당장 도전해 보자!

글/사진: 박은지 [디지털 교육 강사]



글자를 다양하게 설정한 후
화면 빈 곳을 터치하여
설정창을 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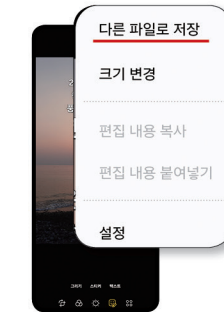
STEP 06

입력된 글자를 드래그하면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 버튼을
터치하면 글자를 지울 수 있다.



STEP 07

✂ 버튼을 터치한 후 [다른 파일로
저장]을 터치해 인사말 카드를
갤러리에 저장한다.



TIP) [저장] 버튼을 터치하면
원본 사진이 사라지기 때문에
꼭! 다른 파일로 저장해야 한다.



Recipe_01

우영 떡만둣국



<재료> 왕만두 8~10개분량

우영 50g, 돼지고기 다짐육 300g, 두부 1/3모, 배추 2장, 부추 4줄기,
고명용 우영 10g, 대파 1/3대, 왕만두피 8~10장, 떡국떡 150g, 멸치육수 또는
사골육수 1.2L, 소금 약간, 간장 1/2큰술

<만드는법>

1. 껍질을 제거한 우영과 배추, 부추는 작게 다지고 고명용 우영은 길이 3cm로
채 썰고 대파는 송송 썬다.
2. 중불로 달군 팬에 고명용 우영채와 간장 1/2큰 술을 넣고 볶는다.
3. 볼에 ①과 돼지고기 다짐육, 두부, 간장 1큰 술, 소금을 넣고 두부를 부숴가며 고루 섞는다.
4. 왕만두피에 속 재료를 채우고 가장자리에 물을 묻혀가며 모양을 잡은 다음, 냄비에
육수를 붓고 끓기 시작하면 만두를 넣고 약 4분 뒤 떡국떡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5. 만두와 떡이 떠오르면 불을 끈 다음, 그릇에 옮겨 담고 송송 썬 대파와 우영채 볶음을
올려 완성한다.



Recipe_02

말차라떼 크림치즈 찹쌀떡



<재료>

카누 에스프레소 말차라떼 2봉, 상온 상태의 크림치즈 1/2컵, 찹쌀가루
200g, 설탕 100g, 소금 1/2작은술, 뜨거운 물 200g, 전분 1/2컵

<만드는법>

1. 볼에 카누 에스프레소 말차라떼 2봉을 넣고 뜨거운 물 3큰술을 넣어
녹인 후 크림치즈를 넣고 섞고 잠시 냉장 보관한다.
2. 다른 볼에 찹쌀가루, 설탕, 소금, 남은 뜨거운 물을 넣고 고루 섞은 후
전자레인지에 약 4분간 데운다.
3. ②의 찹쌀 반죽을 60g씩 떼어내어 손에 붙지 않게 전분을 묻혀가며 동그랗게
반죽을 뭉치고, 속에 ①의 크림치즈를 한 큰 술씩 넣고 뭉친다.
4. 완성된 찹쌀떡을 카누 에스프레소 샷 말차라떼를 함께 곁들인다.

국내 최대 여성 신인 문학상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시상식 개최

Dongsuh News_01

동서식품이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격년마다 개최되는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은 올해로 36년째를 맞은 국내 최대 여성 신인 문학상이다. 지난 5월 말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의 총 4개 부문에 1만 8,629편이 출품되었고, 이 중 484개 작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17회 동서문학상 대상은 김응숙 씨의 소설 '번지점프'가 차지했다. 해당 작품은 '사람의 발목에는 돌덩이 하나가 매달려 있다'는 묵직한 명제를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두 화자의 교차된 시선을 통해 독창적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심도 있는 성찰과 서사력 높은 문장, 주제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희망의 메시지로 환기하며 마무리한 결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한명희 씨의 '말줄임표'(시)와, 유화란 씨의 '분홍 꽃핀'(아동문학)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서식품은 대상작 상금 1,000만 원을 포함해 수상자 484명에게 총 7,9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또한 대상 및 금상 수상자에게는 종합문예지 '월간

문학' 12월호에 작품이 수록되는 등단의 특전과 한국문인협회 입회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동상 이상 수상작은 종이책 및 전자책(e-book)으로 발간되는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 수상작품집'에 수록된다. 대상을 받은 김응숙 씨는 "동서문학상은 바다 아래 잠겨 있던 나의 꿈을 건져 올려주었다"며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좋은 작가가 되도록 앞으로 더 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국내 최고 바둑기사의 우승을 향한 대장정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개최

Dongsuh News_02

동서식품이 12월 12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은 동서식품이 국내 바둑문화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지난 26년간 후원해 온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프로기사 9단에 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이날 개막식에는 한국기원 양재호 사무총장, 동서식품 최상인 홍보상무 등 대회 관계자들과 지난 대회 우승자인 신진서 9단, 준우승자 김명훈 9단이 참석했다. 또한 상위 랭커인 변상일, 원성진 9단과 올해 9단으로 승단해 새롭게 입신최강전에 출전하는 설현준, 박상진, 류민형 등 프로기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진추첨식을 진행했다. 이번 대진추첨식은 '바둑TV'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은 2025년 1월 6일 첫 대국을 시작

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된다. 우승자에게는 '입신 중 입신' 타이틀과 함께 트로피와 상금 7천만 원, 준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천만 원을 수여한다. 경기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7시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온기 있는 연말을 위한 나눔 이웃돕기 성금 9억 원 기탁

Dongsuh News_03

(주)동서(대표 김종원)와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8개 기관에 총 9억 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주)동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하였고, 동서식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한 2억 8천만 원을 비롯하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여성재단, 따뜻한동행, 한국소아암재단, 한국세계자연기금, 대한적십자사, 해피빈 등 총 8개 단체에 8억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탁한 성금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외 이웃을 위한 기초 생계 지원, 동절기 방한용품, 보건 의료 지원 및 환경보전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주)동서와 동서식품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성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눔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식품은 지난 6월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비롯하여, 전국 푸드뱅크에 연중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기부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후원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아메리카노의 맛을 찾다 '카누' 디자인, 품질 개선

Dongsuh News_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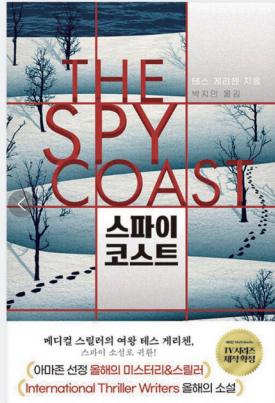
동서식품의 커피 브랜드 '카누'(KANU)가 제품 디자인과 품질을 개선하고 이를 알리는 '카누 이노베이션'을 진행한다. 2011년 출시한 카누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카페 퀄리티의 원두커피를 즐길 수 있게 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지난 10여 년간 스틱 제품 기준 누적 100억 잔 이상 판매되는 성과를 보였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커피 취향 변화에 맞춰 카누 라떼, 카누 디카페인, 카누 시그니처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였고, 2023년에는 프리미엄 캡슐커피 '카누 바리스타'와 '카누 원두' 발매로 카테고리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로 발전해 왔다. 동서식품은 이번 카누 이노베이션을 통해 비와 패키지 디자인을 전면 변경했다. 2011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변경되는 신규 비는 간결하면서도 가독성 높은 서체가 사용되었고 패키지는 카누 스틱/캡슐/원두 공통으로 체계화된 레이아웃을 적용하여 브랜드의 통일성을 더했다. 카누 스틱 커피의 품질도 개선했다. 소비자 조사를 통해 소비자가 가

장 선호하는 아메리카노의 맛을 찾아냈고 카누 '다크', '마일드', '라이트' 각 제품 특성에 맞게 원두 배합비를 변경하고 각 원두가 가진 속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해 제품별로 차별화된 향미를 구현했다. 동서식품은 이번 카누 이노베이션과 함께 신규 TV 광고를 선보였다. 광고에서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일상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즐기며 '카누와 함께 진정한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삶의 향기>와 함께 읽기 좋은 책을 추천합니다

About the Book_01



《스파이코스트》- 테스 게리첸

치열하게 보낸 젊음을 보상하듯 노년은 고즈넉한 살이기를 바라본다. 누구든 원하는 삶이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삶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테스 게리첸의 스릴러 소설 스파이 코스트의 주인공 매기 버드의 삶이 그렇다. 그녀의 젊음은 목숨을 걸 만큼 치열했다. 마지막 임무가 끝나면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날을 꿈꾸던 그녀였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집 앞에 시체 한구가 발견된다. 그녀는 과거로부터 온 경고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녀를 죽이려는 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했던 그녀는 CIA에서 은퇴한 옛 친구들과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돈과 권력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소설은 매기 버드가 만난 사람들의 삶에서 말하고 있다. 매기 버드는 단지 닭을 키우고 블루베리 농장을 가꾸며 살고 싶었다. 소설의 이야기가 나에게 스며들수록 그럭저럭 지나가고 있는 내 삶이 좋아졌다.

김미옥_대구시 동구



《새마음으로》- 이슬아

자기 일을 묵묵히, 성실히, 열심히 하며 세상이 유지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책을 읽으면서 책의 제목인 '새 마음으로'가 더욱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험 마음도 빈 마음도 아닌 새 마음으로 오랫동안 일했나?' 하는 질문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오랜 세월 변함없이 늘 새 마음으로 일을 해 그 일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책 속 사람들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아울러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대단하고, 책에 나온 사람들처럼 각자의 인생 이야기와 식견 등이 궁금해 집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숭고한 사람들의 숭고한 이야기 같은 인터뷰집입니다. 자꾸 자꾸 새마음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김미숙_부산시 연제구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1·2월호를 읽고 떠오르는 신간이나 기억에 남는 도서를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이메일) essayds@naver.com * 접수 마감: 2025년 1월 31일(금) (이름, 연락처, 주소 기재)

아날로그의 감성 그 진심을 담다
독자여러분의 정성으로 가득찬 예쁜엽서를 소개합니다

Pretty Postcard_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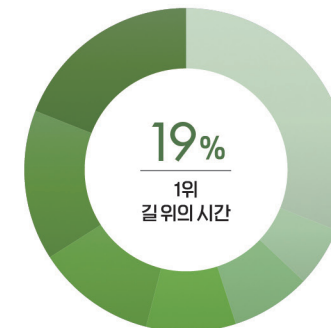


* 예쁜 엽서 당첨자

김숙경_서울 동대문구
박정근_서울 구로구
이양섭_경기 평택시
송병욱_강원 양구군
홍희숙_경남 양산시

선호도 칼럼 조사
11·12 월호 독자 여러분의 선택

Preference Column_03



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총 405건(12월 5일 기준)으로 가장 좋았던 칼럼으로 '길 위의 시간' 과 '한국의 재발견', '올 댓 커피', '우리집 식물원', '도시를 걷다', '차 한 잔의 향기'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위] 길 위의 시간	19%	[4위] 우리집 식물원	9%
[2위] 한국의 재발견	15%	[5위] 도시를 걷다	8%
[3위] 올 댓 커피	12%	[6위] 차 한 잔의 향기	6%
		기타	31%

독자의견



길 위의 시간
갈라파고스 섬은 생물시간에 배웠었는데
예과도르에 속한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파란 물결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임은주_서울 구로구



올 댕 커피
'올 댕 커피'는 참 재미있어요. 엘살바도르는
먼 나라 같았는데 커피의 나라라고 하니
갑자기 친밀해진 느낌입니다.
김선희_경기 부천시



도시를 걷다
나주읍성 고샅길의 글을 같이 걷다 보니
고즈넉한 야경이 찾아옵니다. 고운 풍경을
눈에 담으니 마음 발에 쌓인 안개가 조금씩
건져버렸습니다.
배현주_경기 양주시



한국의 재발견
주부로서 감정이 가장 큰 숙제인데 재미난
소설을 읽는 듯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고,
어릴 적 우리 동네 모습 같아서 정겨웠어요.
장영옥_서울 송파구



우리집 식물원
선물로 받은 화분 몇 개가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 처음 갖는 겨울이 걱정이 되었는데
덕분에 겨울 준비 끝입니다.
이금희_충북 청주시



차 한 잔의 향기
소중한 사람을 환대하는 시간이란 글이 참
 좋습니다. 김지연님의 환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 내 마음에 미소가 가득
변졌습니다.
황정현_서울 광진구

독자엽서 당첨자

- | | |
|-----|---------|
| 강옥순 | 경기 오산시 |
| 고미영 | 전남 목포시 |
| 고일규 | 서울 송파구 |
| 김경리 | 부산 동래구 |
| 김금숙 | 경기 군포시 |
| 김서희 | 광주 서구 |
| 김수미 | 대전 유성구 |
| 김수희 | 대전 유성구 |
| 김순영 | 경기 안산시 |
| 김신연 | 서울 구로구 |
| 김예지 | 경기 안양시 |
| 김웅희 | 광주 북구 |
| 김정환 | 서울 관악구 |
| 김진수 | 서울 동대문구 |
| 김춘자 | 전남 여수시 |
| 김혜선 | 부산 사하구 |
| 김호남 | 서울 동대문구 |
| 남성희 | 경북 예천군 |
| 모윤수 | 서울 서초구 |
| 박강석 | 광주 남구 |
| 박경록 | 경북 청도군 |
| 박민희 | 인천 서구 |
| 박윤진 | 경기 고양시 |
| 박지은 | 경북 경주시 |
| 송영목 | 대전 중구 |
| 송옥자 | 전남 영광군 |
| 신인숙 | 경기 군포시 |
| 안소정 | 서울 동작구 |
| 양태인 | 인천 남동구 |
| 오선옥 | 전북 순창군 |
| 유선영 | 서울 성북구 |
| 윤신희 | 경남 함안군 |
| 이민정 | 경남 창원시 |
| 이사회 | 경기 고양시 |
| 이상원 | 서울 강남구 |
| 이영희 | 울산 동구 |
| 이우녀 | 서울 강남구 |
| 이원희 | 서울 강동구 |
| 이정숙 | 경기 부천시 |
| 전예빈 | 경기 의정부시 |
| 정광영 | 서울 강서구 |
| 정태영 | 서울 광진구 |
| 조수영 | 경기 평택시 |
| 최두현 | 광주 서구 |
| 최 솔 | 광주 북구 |
| 최옥희 | 서울 강동구 |
| 최지유 | 광주 북구 |
| 최진숙 | 경기 화성시 |
| 홍해수 | 충남 당진시 |
| 황석영 | 부산 금정구 |

※ 독자상품은 1월 중 배송됩니다.

독자퀴즈



원래는 청어를 말려 만들었지만,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개체수가 줄어 요즘에는 공치로 이것을 만든다.
겨울철이면 해조류와 함께 생각나는 이 음식은 무엇인가?

★ 34쪽을 참고해 독자 엽서 또는 QR코드를 스캔해 응모하세요. 마감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 전화번호를 적지 않으면 배송 문제로 당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엽서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표기하지 않으면 당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난 호 정답

버번종

11.12월호 정답자는
362명입니다.

← 브랜드 스토리



나에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나를 웃게 한 건 무엇이었나요?
요즘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는?
하루 중 가장 여유 있는 순간은?

나를 찾는 순간, 나를 찾는 커피

KANU

WHITE GOLD



Maxim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는 동서식품에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행하고 있는 사외보입니다.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수집, 이용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동의 내용에 대하여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불가피하게 사외보 발송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경로로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구독 신청 안내

당사의 사외보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을 원하는 분께서는 ①홈페이지 본인 인증 또는 ②독자엽서를 통해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www.dongsuh.co.kr → 홍보센터 → 웹진 삶의 향기
→ 신규 구독 신청의 순으로 신청하시면 신청한 다음 호부터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독자 엽서를 통해 구독 신청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
2. 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구독종지요청 시까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외보 발송 및 당첨자 경품 발송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당사는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 케이아트만㈜, ㈜인스팟, 월드피에이디
2. 위탁 업무 내용 : 사외보 제작·발송 및 경품 발송
3. 동서식품(주)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홈페이지 및 엽서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문의사항】 사외보〈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향기〉편집실

Tel : 02-511-7053 / E-mail : sarmhyang@naver.com (수탁자 케이아트만㈜에서 진행합니다.)

· 이 름 : _____ · 전화번호 : _____
· 주 소 : _____

☐ 신규 ☐ 변경 ☐ 중지 ☐ 기존

독 / 자 / 의 / 권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칼럼과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번 호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퀴즈/정답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정 답 :

· 연락처 :



정답자 상품 배송을 위해 연락처를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
토
표
주

보내는 사람

 $\frac{0}{0/2}$

주인

바는 사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68, 4층 402호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 담덩자 앞

0 3 5 6 0

사람과 사람, 함께 하는

사자의
행거

2025 * No.50

January+February

향긋한 인터넷 카페 동서식품 홈페이지
www.dongsuh.co.kr

사람과 사람, 함께하는 삶의 향기는
맥스웰 향기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 최성환_하얀 마음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부담

빈송유호기간
2023.05.01 ~ 2025.04.30

서울서초우체국
제 41389호